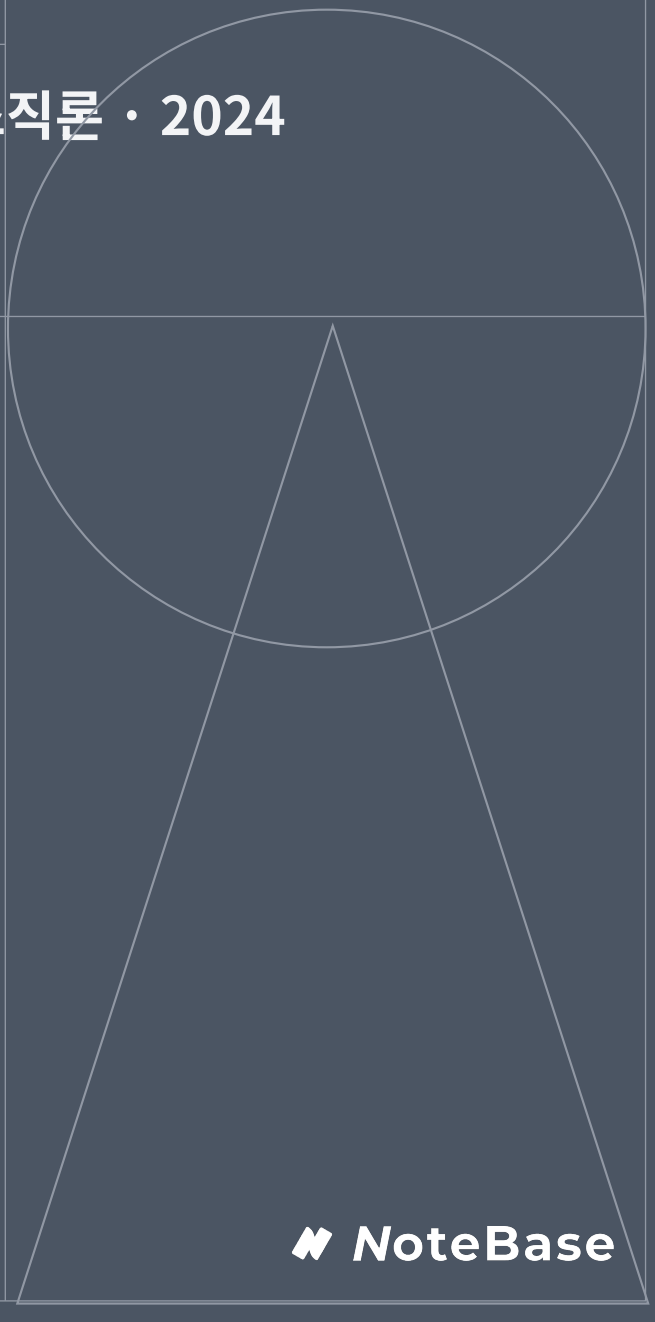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4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4

1. 다음 중 문헌분류와 학문분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헌분류는 자료 또는 문헌의 주제나 표현 형식이 분류의 기준이 된다.
   ② 학문분류는 색인이 필요하며 구체적, 실용적, 실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문헌분류는 데이터, 정보, 자료, 문헌 등이 분류의 대상이 된다.
   ④ 학문분류는 학문자체의 분류나 사물 및 개념 상호간의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헌분류와 학문분류를 분류 대상, 기준, 목적, 성격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헌분류는 자료나 문헌을 주제 또는 형식에 따라 실제로 배열하고 검색하기 위한 분류이다.
구체적·실용적·실제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색인이 필요하다.
학문분류는 학문 자체를 체계화하고 사물 및 개념 사이의 관계와 발전을 밝히기 위한 이론적 분류이다.
문헌분류는 자료의 조직과 검색, 학문분류는 지식 체계의 구조화가 중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헌분류는 자료나 문헌의 주제 또는 표현 형식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학문분류는 색인이 필요하며 구체적, 실용적, 실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다. 이러한 특징은 학문분류가 아니라 문헌분류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문헌분류는 색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실용적·실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야 한다. 학문분류는 학문과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이론적·추상적 성격이 강하다.
③ O — 문헌분류는 도서만이 아니라 데이터, 정보, 자료, 문헌 등 조직과 검색이 필요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절하다.
④ O — 학문분류는 학문 자체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사물 및 개념 상호 간의 관계와 발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색인', '구체적', '실용적', '실제적'이라는 문헌분류의 표지를 학문분류의 특징처럼 바꾸어 놓았다. 문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를 실제로 배열하고 찾아 쓰는 문제이면 문헌분류로, 학문과 개념의 전체 체계 및 상호 관계를 세우는 문제이면 학문분류로 판단한다. '색인·검색·실용·구체'는 문헌분류 쪽의 핵심 표지이다.

암기 포인트

문헌분류는 자료를 찾기 위한 실용적 분류이고, 학문분류는 지식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분류이다.

NoteBase

2. 다음 중 분석합성식 분류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분석합성식 분류표 사례로는 콜론 분류표가 있다.
② 합성 주제와 복합 주제, 반복 주제 등을 열거할 필요가 없기에 열거식 분류표에 비해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③ 동일 주제에 대해 동일한 기호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성의 개념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④ 합성 후 만들어지는 분류 기호가 열거식의 경우보다 더 길고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 서가상 배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대표 사례와 장단점, 특히 공통 개념에 같은 기호를 부여하는 조기성의 구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석합성식 분류표: 복합 주제를 기본 주제와 패싯(관점·특성)으로 분석한 뒤 각 요소의 기호를 합성하여 분류기호를 만드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분석 후 합성'이다.
열거식 분류표: 예상되는 복합 주제를 미리 열거하고 완성된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사전 열거'이다.
분석합성식은 열거 항목을 줄여 분류표의 부피를 작게 할 수 있고 공통 개념에 일관된 기호를 부여하기 쉽지만, 합성된 기호가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콜론분류법은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하고 콜론 등의 연결 기호를 이용해 분류기호를 합성하는 대표적인 분석합성식 분류표이다.
② O — 복합 주제와 반복적으로 쓰이는 공통 요소를 모두 완성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합성하므로, 열거식 분류표보다 분류표 자체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동일 주제에 대해 동일한 기호의 사용이 불가'하고 '조기성의 개념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다. 분석합성식에서는 반복되는 동일 개념이나 공통 패싯에 동일한 기호를 일관되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조기성을 도입하기가 오히려 용이하다.
④ O — 여러 패싯의 기호를 차례로 합성하면 완성된 분류기호가 열거식의 기호보다 길고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가 배열과 기호 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분석합성식에서 주제 요소를 조합할 때 기호가 달라질 것처럼 표현해 혼동을 유도한다. 그러나 '합성한다'는 것은 공통 요소의 기호를 매번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일관된 요소 기호들을 결합한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열거 항목 감소·부피 축소·공통 요소의 일관된 기호·조기성 용이'가 나오면 분석합성식의 장점으로 판단하고, '합성 결과 기호가 길고 복잡함·서가 배열의 어려움'은 단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석합성식은 '표는 작게, 기호는 길게, 공통 개념은 같은 기호로' 기억한다.

NoteBase

3. 다음 설명이 지목하는 분류법은 무엇인가?

- 미국 세인트 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 관장
-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배열, 목록배열, 대출과 반납에 사용한 최초의 분류법
- 베이컨과 헤겔의 분류체계 활용
- DDC 분류체계에 중요한 영향

① 에드워즈 분류법 ② 해리스 분류법
③ 카터 분류법 ④ 브라운 분류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의 실용적 사용, 베이컨·헤겔의 지식분류, DDC에 대한 영향이라는 단서로 해리스 분류법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해리스 분류법: 윌리엄 토리 해리스가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을 위해 만든 분류법으로, 베이컨의 지식분류를 역전한 체계에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DDC의 주류 배열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카터 분류법: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수준의 분류표를 마련한 전개분류법이다.
브라운 분류법: 제임스 더프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으로, 하나의 주제를 한곳에 모으는 원리를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에드워즈 분류법'이다. 제시된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 베이컨·헤겔, DDC 영향이라는 특징은 에드워즈가 아니라 해리스 분류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해리스 분류법'이다.
② O — 해리스는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이 분류법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 및 목록 배열과 대출·반납 업무에 사용한 초기의 실용적 분류법이며, 베이컨과 헤겔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DDC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카터 분류법'이다. 카터의 전개분류법은 도서관 규모에 맞추어 단순한 단계에서 세분된 단계로 확장하는 체계가 핵심이다. 제시문의 설명을 올바르게 고치면 '해리스 분류법'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브라운 분류법'이다.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원리가 핵심이며, 제시문의 세인트루이스·베이컨과 헤겔·DDC 영향이라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해리스 분류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DDC에 영향을 준 분류법’이라는 단서만 보고 카터 분류법과 혼동하기 쉽다. 카터의 전개분류법은 미국 의회도서관분류법에 영향을 주었고, 해리스 분류법은 DDC의 주류 배열에 영향을 주었다는 대응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인트루이스, 베이컨의 역전, 헤겔, DDC가 함께 제시되면 해리스 분류법으로 판단한다. 도서관 규모별 단계적 확장은 카터, 주제의 한곳 모으기는 브라운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해리스는 세인트루이스·베이컨과 헤겔·DDC, 카터는 규모별 전개, 브라운은 주제의 한곳 모으기이다.

NoteBase

4. 다음 중 중국 문헌분류사의 관계성에 따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한(前漢) - 유향과 유흠 - 칠략
② 후한(後漢) - 반고 - 한서예문지
③ 송나라 - 왕검 - 비각 소장도서 관수목록
④ 양나라 - 완효서 - 중경신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국 목록학의 시대·편찬자·목록서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유향·유흠: 전한의 황실 장서를 교정·정리했으며, 유향의 《별록》을 바탕으로 유흠이 《칠략》을 완성하였다.
반고: 후한의 역사가로, 《칠략》을 토대로 《한서 예문지》를 편찬하였다.
왕검: 남조 송나라 때 비각 소장 도서를 정리한 관수목록을 편찬하였다.
완효서: 양나라 때 기존 목록을 종합하여 《칠록》을 편찬하였다.
순욱: 서진 때 《중경신부》를 편찬하여 장서를 갑·을·병·정의 4부로 나누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한의 유향과 유흠은 황실 장서를 교정·정리했으며, 유흠은 유향의 성과를 바탕으로 《칠략》을 완성하였다.
② O — 후한의 반고는 유흠의 《칠략》을 토대로 《한서 예문지》를 편찬하였다.
③ O — 왕검은 남조 송나라에서 비각 소장 도서를 정리한 관수목록인 《송원휘원년비각사부서목록》을 편찬하였다.
④ X — 틀린 부분은 '완효서—중경신부'의 연결이다. 양나라의 완효서가 편찬한 목록서는 《칠록》이며, 《중경신부》는 서진의 순욱이 편찬하였다. 따라서 '양나라—완효서—칠록' 또는 '서진—순욱—중경신부'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양나라와 완효서의 연결 자체는 맞지만 목록서명을 《칠록》이 아닌 《중경신부》로 바꾸어 놓았다. 한 선지 안에서 시대와 인물만 확인하고 문헌명을 놓치기 쉬운 점을 노린 것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인물·문헌을 세 칸으로 나누어 각각 확인한다. 특히 '완효서=칠록', '순욱=중경신부'를 먼저 대조하면 잘못된 연결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전한 유향·유흠=칠략, 후한 반고=한서 예문지, 송 왕검=비각 관수목록, 양 완효서=칠록, 서진 순욱=중경신부이다.

NoteBase

5. 다음 키워드들에 의해 설명되는 우리나라 목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키워드: 조선시대, 해제서목, 김휴, 명문가 소장 문헌, 사부 분류체계의 일부 변용

① 규장총목　② 누판고
③ 제실도서목록　④ 해동문헌총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서목을 편찬자, 수록 대상, 해제 방식, 분류체계의 특징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김휴, 명문가 소장 문헌, 사부분류법의 변용이라는 단서가 해동문헌총록을 가리킨다.

핵심 개념

해동문헌총록은 조선 후기 김휴가 국내에 흩어진 도서를 조사하여 서명·저자와 함께 저자의 전기 및 문헌에 관한 해설을 수록한 해제서목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부분류법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문헌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규장총목은 정조의 명에 따라 서호수가 편찬한 규장각 장서의 분류순 해제목록이고, 누판고는 정조의 명에 따라 서유구 등이 전국의 책판을 조사한 목록이며, 제실도서목록은 1909년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가 궁내외 장서를 모아 정리한 목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김휴가 명문가 소장 문헌을 조사하여 편찬한 서목'이라는 설명이 규장총목과 맞지 않는다. 규장총목은 1781년 정조의 명에 따라 서호수가 편찬한 규장각 장서의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② X — 누판고의 편찬자와 조사 대상이 제시된 키워드와 다르다. 누판고는 1796년 정조의 명에 따라 서유구 등이 중앙과 지방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이다.
③ X — 제실도서목록은 조선시대 김휴의 저술이 아니다. 제실도서목록은 1909년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가 규장각·춘방·집옥재 등 궁내외 장서를 모아 정리한 목록이다.
④ O — 해동문헌총록은 조선 후기 김휴가 전란을 피한 영남 지역 명문가 등에 남아 있던 문헌을 조사하여 편찬한 해제서목이다. 저자의 행적과 문헌의 내용 등을 해설하고 전통 사부분류의 틀을 일부 변용한 특징까지 모든 키워드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누판고도 사부분류법을 사용하고 서문·발문과 간단한 해제를 수록하므로 ②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누판고의 결정적 대상은 '도서 일반'이 아니라 인쇄용 책판이고, 편찬의 중심 인물도 김휴가 아니라 서유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편찬자와 조사 대상을 먼저 짝지어 판단한다. 김휴·국내 산재 문헌·저자 전기 중심 해제이면 해동문헌총록, 서호수·규장각 장서이면 규장총목, 서유구·전국 책판이면 누판고, 1909년·궁내외 왕실 장서이면 제실도서목록이다.

암기 포인트

김휴는 해동문헌총록, 서호수는 규장총목, 서유구는 누판고이다.

NoteBase

6. 다음은 KDC의 보조표와 본표 상호간 조기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05(표준구분표)와 050(본표)의 의미를 ㉠, ㉡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표준구분표	본표
03 사전, 인용사전	030 백과사전
04 강연집, 수필집 등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05 (㉠)	050 (㉡)

① ㉠ - 연속간행물 ㉡ - 일반 연속간행물
② ㉠ - 총서 ㉡ - 총서, 전집
③ ㉠ - 지도법 ㉡ - 지도 연구
④ ㉠ - 학회, 단체 ㉡ - 일반 학회, 단체 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 표준구분표의 05와 본표의 050이 각각 나타내는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구분표의 05는 특정 주제의 분류기호 뒤에 덧붙여 그 주제에 관한 연속간행물을 나타내는 보조기호이다.
본표의 050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연속간행물을 분류하는 독립된 본표 기호이다.
따라서 05는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로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05를 '연속간행물', 050을 '일반 연속간행물'로 연결했으므로 옳다. 05는 주제 분류기호에 부가되는 표준구분이고, 050은 본표에서 일반 연속간행물을 나타낸다.
② X — '05-총서, 050-총서·전집'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는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다.
③ X — '05-지도법, 050-지도 연구'라는 연결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는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다.
④ X — '05-학회·단체, 050-일반 학회·단체 등'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는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표준구분표의 두 자리 기호 05와 본표의 세 자리 기호 050은 숫자 모양이 비슷하지만 기능이 다르다. 05를 독립된 주류 기호처럼 보거나, 총서·지도법·학회와 같은 다른 개념을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구분표 기호는 다른 주제 분류기호에 덧붙이는 보조기호이고, 본표의 세 자리 기호는 독립된 주류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한다. 그다음 05와 050의 공통 핵심어인 '연속간행물'을 찾고, 본표 050에는 '일반'이 붙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05는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다.

NoteBase

7. 다음 중 국제십진분류법(UDC)의 주류에서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공기호로 남겨져 있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1 ② 4

③ 7 ④ 9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십진분류법(UDC)의 10개 주류 가운데 장래의 확장을 위해 비워 둔 공기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DC는 지식 전 분야를 0부터 9까지의 주류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주류 4는 특정 주제를 배정하지 않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위해 비워 둔 공기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주류 1은 철학·심리학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공기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1'이며, 장래의 확장을 위해 비워 둔 주류는 4이다.

② O — 주류 4는 특정 주제를 배정하지 않고 장래의 확장을 위해 남겨 둔 공기호이다.

③ X — 주류 7은 예술·오락·스포츠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공기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7'이며, 공기호는 4이다.

④ X — 주류 9는 지리·전기·역사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공기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9'이며, 공기호는 4이다.

오답 포인트

UDC의 주류가 0부터 9까지 이어진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모든 숫자에 주제가 배정되었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4는 결번이 아니라 장래의 확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 둔 공기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DC 주류에서 '공기호', '미사용', '장래 확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류 4를 선택한다. 1·7·9처럼 이미 주제가 배정된 주류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UDC의 4는 장래 확장을 위해 비워 둔 자리이다.

NoteBase

8. DD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문에 의한 분류와 주제에 의한 분류가 보완을 이루고 있다.
② 현재 판권은 OCLC가 가지고 있다.
③ DDC 제23판은 서론, 본표, 보조표 이렇게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DDC 제23판은 WebDewey를 이용해 웹 형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DDC의 분류 원리, 판권 보유 기관, 제23판 인쇄본의 권책 구성, 온라인판인 WebDewey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학문 분야별로 배열하는 열거식 십진분류법이다. 하나의 주제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문별 본표 배열과 주제 접근을 돕는 상관색인이 서로 보완한다. 제23판 인쇄본은 서론·보조표·본표·상관색인 등의 내용을 총 4권에 나누어 수록하며, 온라인으로는 WebDewey를 이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DDC는 기본적으로 학문 분야에 따라 자료를 배열하고, 상관색인은 동일한 주제가 여러 학문에 분산된 경우 주제에서 해당 분류번호로 접근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학문에 의한 분류와 주제에 의한 접근이 상호 보완된다.
② O — DDC의 판권은 OCLC가 보유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서론, 본표, 보조표 이렇게 총 3권'이다. DDC 제23판 인쇄본은 1권에 서론·보조표·매뉴얼 등을, 2권과 3권에 본표를, 4권에 상관색인을 수록하는 총 4권 구성이다.
④ O — DDC 제23판의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인 WebDewey를 통해 웹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서론·본표·보조표'라는 내용 요소를 세어 권수와 동일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본표가 두 권에 나뉘고 상관색인이 별도 권으로 편성되므로 실제 인쇄본은 총 4권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의 구성 문제에서는 내용 요소의 종류와 실제 권책 수를 구분한다. 제23판 인쇄본은 1권 서론·보조표·매뉴얼, 2·3권 본표, 4권 상관색인의 4권 구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DDC 제23판은 OCLC·WebDewey·인쇄본 4권으로 연결해 기억한다.

NoteBase

9. DDC의 4가지 분류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적용규칙-선행규칙-삼자포괄규칙-제로규칙
② 적용규칙-후행규칙-삼자종합규칙-제로규칙
③ 적용규칙-선행규칙-삼자종합규칙-제로규칙
④ 적용규칙-후행규칙-삼자포괄규칙-제로규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DDC에서 복수 주제의 분류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네 가지 분류규칙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용규칙: 서로 관련된 주제나 요소를 다룬 자료는 직접 적용되는 주제, 영향을 받은 주제 또는 결과가 되는 주제에 분류한다.
선행규칙: 두 독립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고 어느 쪽도 더 중요하지 않으면 분류표에서 앞에 놓인 주제에 분류한다.
삼자포괄규칙: 동일한 상위주제의 세목에 해당하는 세 개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면 그 주제들을 포괄하는 상위주제에 분류한다.
제로규칙: 둘 이상의 분류기호가 적합하면 0을 수반하지 않거나 0을 더 적게 수반하는 기호를 우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적용규칙, 선행규칙, 삼자포괄규칙, 제로규칙은 DDC의 네 가지 분류규칙을 모두 정확히 제시한다.
② X — '후행규칙'과 '삼자종합규칙'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선행규칙'과 '삼자포괄규칙'이다.
③ X — '삼자종합규칙'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삼자포괄규칙'이다.
④ X — '후행규칙'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선행규칙'이다.

오답 포인트

후행규칙은 두 언어 사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예외적 처리와 혼동하기 쉽지만, DDC의 네 가지 일반 분류규칙에 포함되는 명칭은 선행규칙이다. 또한 세 개 이상의 동등한 주제를 공통 상위주제로 모으는 규칙의 정확한 명칭은 삼자종합규칙이 아니라 삼자포괄규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적용-선행-삼자포괄-제로'의 네 명칭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후행이나 삼자종합이라는 표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DDC의 네 가지 분류규칙을 정확히 나열한 선지가 아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DDC 네 규칙은 '적·선·삼포·제', 즉 적용규칙·선행규칙·삼자포괄규칙·제로규칙이다.

NoteBase

10. KDC에서 문학류 분류의 기본적인 열거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언어 → 주류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
② 언어 → 주류 → 문학 시대 → 문학 형식
③ 주류 → 언어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
④ 주류 → 언어 → 문학 시대 → 문학 형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DC 문학류에서 분류 요소를 큰 범주에서 세부 범주로 배열하는 기본 열거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주류 — 먼저 자료가 속하는 큰 분류 영역을 정한다.
2. 언어 — 문학 자료가 속하는 언어권을 구분한다.
3. 문학 형식 — 시·희곡·소설 등 작품의 형식을 구분한다.
4. 문학 시대 — 같은 언어와 형식 안에서 시대를 세분한다.

왜 이 순서인가: 큰 분류인 주류를 먼저 정한 뒤 언어, 문학 형식, 문학 시대의 순서로 범위를 좁혀 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 '언어 → 주류'로 배열하여 주류보다 언어를 먼저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 올바르게는: '주류 → 언어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이다.

② X
- 틀린 부분: '언어 → 주류'와 '문학 시대 → 문학 형식'의 두 선후관계가 모두 뒤바뀌었다.
- 올바르게는: '주류 → 언어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이다.

③ O
- 주류를 먼저 정하고 언어, 문학 형식, 문학 시대의 순서로 세분하므로 KDC 문학류의 기본 열거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틀린 부분: '문학 시대 → 문학 형식'으로 배열하여 문학 형식보다 문학 시대를 먼저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 올바르게는: '주류 → 언어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는 '주류와 언어' 및 '문학 형식과 문학 시대'의 위치를 각각 바꾸어 놓았다. 주류가 언어보다 먼저이고, 문학 형식이 문학 시대보다 먼저라는 두 경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류의 열거순서는 큰 분류에서 세부 분류로 좁혀 가는 '주류 → 언어 → 문학 형식 → 문학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언-형-시': 주류, 언어, 문학 형식, 문학 시대의 순서이다.

NoteBase

11. 1998년에 제시된 FRBR(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의 4개 기능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탐색 - 제시 - 확보 - 구분
② 제시 - 확보 - 구분 - 식별
③ 제시 - 확보 - 식별 - 선정
④ 탐색 - 식별 - 선정 - 확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FRBR이 제시한 네 가지 기본 이용자 과업인 탐색, 식별, 선정, 확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탐색(Find)은 이용자의 검색 조건에 맞는 하나 이상의 서지적 실체를 찾아내는 과업이다.
식별(Identify)은 발견한 실체가 찾던 대상인지 확인하고 유사한 실체와 구별하는 과업이다.
선정(Select)은 내용, 판형, 언어 등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실체를 선택하는 과업이다.
확보(Obtain)는 구입, 대출, 접속 등의 방법으로 선택한 실체를 입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네 과업의 표준적인 흐름은 '탐색 → 식별 → 선정 → 확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와 '구분'은 FRBR의 네 가지 기본 이용자 과업 명칭이 아니며, 식별과 선정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선정 → 확보'이다.
② X — '제시'와 '구분'은 기본 이용자 과업 명칭이 아니며, 탐색과 선정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선정 → 확보'이다.
③ X — '제시'는 기본 이용자 과업 명칭이 아니고 탐색이 빠졌으며, 나머지 과업의 배열도 표준적인 흐름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선정 → 확보'이다.
④ O — 탐색, 식별, 선정, 확보는 각각 Find, Identify, Select, Obtain에 대응하므로 FRBR의 네 가지 기본 이용자 과업을 정확히 제시한다.

오답 포인트

'식별'을 일상어인 '구분'으로 바꾸거나, 검색 결과를 보여 준다는 뜻의 '제시'를 정식 과업처럼 섞은 선지가 함정이다. FRBR의 공식적인 네 과업 명칭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BR 이용자 과업은 '먼저 찾고(탐색), 맞는 대상인지 확인하고(식별), 필요한 것을 고른 뒤(선정), 실제로 입수하거나 접근한다(확보)'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BR 기본 이용자 과업은 '탐-식-선-확', 즉 탐색·식별·선정·확보이다.

NoteBase

12. 2009년에 제시된 FRAD(Functional Requirement for Authority Data)의 4개 기능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탐색 – 식별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
② 탐색 – 선정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
③ 선정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 – 확보
④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 – 확보 – 제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FRAD가 제시한 전거 데이터의 네 가지 이용자 과업인 탐색, 식별, 관계부여(맥락화), 근거제시(타당성 설명)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FRAD의 이용자 과업은 전거 데이터를 이용하는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탐색(Find): 속성이나 관계를 이용해 원하는 개체 또는 개체 집합을 찾는 과업이다.
식별(Identify): 찾은 개체가 원하는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동명이인 등을 구별하는 과업이다.
관계부여·맥락화(Contextualize): 개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개체가 놓인 맥락을 이해하는 과업이다.
근거제시·타당성 설명(Justify): 전거 데이터에서 특정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채택한 이유를 기록하여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탐색, 식별, 관계부여(맥락화), 근거제시(타당성 설명)는 FRAD의 네 가지 이용자 과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 '선정'이 잘못된 표현이다. FRAD의 해당 과업은 찾은 대상을 확인하고 구별하는 '식별'이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이다.
③ X — '선정'과 '확보'가 FRAD의 이용자 과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탐색'과 '식별'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이다.
④ X — '확보'와 '제시'는 FRAD의 네 이용자 과업이 아니며 '탐색'과 '식별'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탐색 - 식별 - 관계부여(맥락화) - 근거제시(타당성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일상적으로 그럴듯한 '선정', '확보', '제시'를 섞어 FRAD의 정식 과업명처럼 보이게 한다. 특히 ②의 '선정'은 '식별'과 비슷해 보이지만, 식별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확인하고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AD의 기능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원하는 대상을 찾고(탐색), 맞는 대상인지 확인하며(식별),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맥락화), 채택한 형식의 이유를 밝히는지(타당성 설명)를 차례로 대조한다. '선정·확보·제시'가 끼어 있으면 정식 네 과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AD 네 과업은 '찾고-확인하고-맥락을 잡고-근거를 밝힌다', 즉 탐색-식별-맥락화-타당성 설명이다.

NoteBase

13. FRBR의 엔티티 그룹 중 그룹1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작 - 구현형 - 개별자료 - 장소
②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
③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 - 장소
④ 구현형 - 개별자료 - 장소 - 개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FRBR의 제1집단 개체 네 가지와 그 배열 순서인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작: 지적·예술적 창작의 추상적인 내용이다.
표현형: 저작이 문자, 음향, 기보 등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구현형: 표현형이 특정 판, 발행 형태, 매체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현된 발행 단위이다.
개별자료: 하나의 구현형에 속하는 실제 낱권이나 낱점 같은 개별 실물이다.
따라서 제1집단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의 순서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저작-구현형' 사이에 표현형이 빠졌고, 장소는 제1집단 개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이다.
② O — 저작이 표현형으로 실현되고, 표현형이 구현형으로 발행·제작되며, 그 구현형의 실제 한 점이 개별자료가 되므로 제1집단의 네 개체가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③ X — 저작이 빠지고 장소가 들어가 있다. 표현형부터 시작하는 '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장소'가 아니라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가 올바른 배열이다.
④ X — 저작과 표현형이 빠졌고, 장소와 포괄적 용어인 개체가 들어가 있다. '구현형-개별자료-장소-개체'가 아니라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가 올바른 배열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앞부분의 저작과 구현형이 익숙해 보여 표현형의 누락을 놓치기 쉽다. 또한 장소는 FRBR에 등장하는 개체이지만 제1집단이 아니므로, FRBR의 개체라는 이유만으로 제1집단에 포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창작 내용 자체인지, 그 내용의 실현 형태인지, 특정 판·매체의 발행 단위인지, 손에 잡히는 개별 실물인지를 차례로 판단하면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로 배열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제1집단은 '저-표-구-개', 즉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이다.

NoteBase

14. 다음 내용의 연속간행물을 MARC로 입력했을 때 표시기호와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표제/저자	AI and Society : the journal of human and machine intelligence
발행사항	London : Springer Verlag, [1988]-
형태사항	vol.: ill.; 25 cm
주기사항	vol.1 no.1(1987)-
간행빈도	불명
표준번호	ISSN 0951-5666

① 022 ▼a0951-5666▲
310 ▼a간행빈도불명▲
② 022 ▼a0951-5666▲
380 ▼a간행빈도불명▲
③ 020 ▼a0951-5666▲
310 ▼a간행빈도불명▲
④ 020 ▼a0951-5666▲
380 ▼a간행빈도불명▲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속간행물의 ISSN과 현재 간행빈도를 각각 어느 MARC 필드에 입력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022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입력하는 필드이며, 식별번호는 하위필드 a에 기술한다.
310은 현재 간행빈도를 입력하는 필드이므로, 주어진 자료처럼 간행빈도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간행빈도불명'을 하위필드 a에 입력한다.
020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380은 저작의 형식(Form of Work)을 입력하는 필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준번호 'ISSN 0951-5666'은 022의 하위필드 a에, '간행빈도 불명'은 310의 하위필드 a에 입력하므로 두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 '022 ▼a0951-5666▲'은 옳지만, 간행빈도에 380을 사용한 부분이 틀리다. '380 ▼a간행빈도불명▲'은 '310 ▼a간행빈도불명▲'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310 ▼a간행빈도불명▲'은 옳지만, ISSN에 020을 사용한 부분이 틀리다. '020 ▼a0951-5666▲'은 '022 ▼a0951-5666▲'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ISSN에 020을, 간행빈도에 380을 사용한 두 부분이 모두 틀리다. 각각 '022 ▼a0951-5666▲'과 '310 ▼a간행빈도불명▲'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020과 022는 모두 표준번호 관련 필드라서 혼동하기 쉽고, 310과 380은 태그 숫자의 모양이 비슷해 바꾸어 고르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자료의 형태사항이나 발행연도가 아니라 'ISSN'과 '간행빈도 불명'이라는 직접적인 단서를 필드에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입력할 정보의 성격을 구분한다. ISBN이면 020, ISSN이면 022, 현재 간행빈도이면 310, 저작의 형식이면 380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SBN은 020, ISSN은 022, 현재 간행빈도는 310, 저작의 형식은 380이다.

NoteBase

15. 다음 중 DDC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itation order : 여러 패싯이나 특성을 어떤 순서로 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서

② filing order : 여러 패싯을 분석하여 기호화한 결과로 생성된 분류기호를 배가 또는 배열하기 위한 순서

③ preference order : 자료의 주제에 이질적인 특성이 존재하여 모두 기호화할 수 없는 경우 분류기호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우선 적용하는 순서

④ rule of zero : 복수의 분류기호가 모두 가능한 경우,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과 1-9로 시작하는 세구분 가운데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규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DDC에서 복합 주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citation order, filing order, preference order와 rule of zero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itation order는 둘 이상의 특성·패싯을 분류기호로 결합할 때 어느 특성을 먼저 결합할지 정하는 순서이다.
filing order는 패싯 분석으로 만들어진 분류기호나 세구분을 분류표 안에 배열하는 순서이다.
preference order는 여러 특성을 모두 기호화할 수 없을 때 어느 특성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우선 선택할지 정하는 순서이다.
rule of zero는 같은 기호 위치에서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과 1~9로 시작하는 세구분 중 선택할 수 있으면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피하고 1~9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우선하는 규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citation order는 여러 패싯이나 특성을 어떤 순서로 결합할지를 정하는 순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filing order는 패싯 분석으로 생성된 분류기호를 전개·배가하거나 배열할 때 적용하는 순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O — preference order는 이질적인 여러 특성을 모두 나타낼 수 없을 때 어느 특성을 우선하여 분류기호를 선택할지 정하는 순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피하고 1~9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오답 포인트

'rule of zero'라는 명칭 때문에 0을 우선하는 규칙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규칙의 핵심은 0으로 시작하는 세구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피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합 순서를 묻으면 citation order, 배열 순서를 묻으면 filing order, 모두 표현할 수 없을 때의 선택 우선순위를 묻으면 preference order로 판단한다. 0과 1~9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면 1~9를 우선하는 것이 rule of zero이다.

암기 포인트

citation은 결합, filing은 배열, preference는 선택, rule of zero는 0 회피이다.

NoteBase

16. DDC 제23판을 이용하여 '20세기 한국단편소설 전집'을 분류할 때, 기호의 조합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특정 언어 ㉡ 시대 및 전집 ㉢ 문학 형식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DC 제23판에서 문학 자료의 분류기호를 합성할 때 적용하는 인용 순서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ㄱ 특정 언어 — 한국어로 된 문학, 즉 한국문학의 기본 위치를 정한다.
2. ㄷ 문학 형식 — 소설이라는 형식을 반영하며, 단편소설은 소설 형식에 포함된다.
3. ㄴ 시대 및 전집 — 마지막으로 20세기라는 시대 구분을 반영한다.

왜 이 순서인가: 문학 분류에서는 먼저 언어별 문학을 정하고, 그 안에서 문학 형식을 나눈 뒤, 해당 형식 안에서 시대 및 전집을 세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언어 → 문학 형식 → 시대 및 전집'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특정 언어 → 시대 및 전집 → 문학 형식'으로 시대를 형식보다 먼저 두어 틀렸다. 올바르게는 '특정 언어 → 문학 형식 → 시대 및 전집'이다.

② X — '시대 및 전집'을 출발점으로 두어 틀렸다. 한국문학이라는 특정 언어의 문학을 먼저 정한 뒤 문학 형식과 시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특정 언어 → 문학 형식 → 시대 및 전집'이다.

③ O — 한국문학을 나타내는 특정 언어를 먼저 정하고,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을 적용한 다음, 20세기라는 시대를 반영하는 순서이므로 적절하다.

④ X — '시대 및 전집 → 문학 형식 → 특정 언어'로 특정 언어를 마지막에 두어 틀렸다. 올바르게는 '특정 언어 → 문학 형식 → 시대 및 전집'이다.

오답 포인트

자료명에 '20세기'가 먼저 보인다고 해서 시대를 먼저 결합하는 것이 함정이다. 표제의 어순이 아니라 DDC의 인용 순서에 따라 언어, 형식, 시대 순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자료의 기호 합성 순서를 물으면 먼저 어느 언어의 문학인지 정하고, 다음으로 시·소설·희곡과 같은 문학 형식을 정한 뒤, 마지막으로 시대 및 전집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문학 기호의 인용 순서는 '언어 → 형식 → 시대'이다.

NoteBase

17. LC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류표는 LC 장서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를 기반으로 각 주제의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다.
② 주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5개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③ 세계 최대의 열거식 분류표로서 열거된 분류기호가 방대하기 때문에 분류의 편의성을 위해 종합색인을 제공하고 있다.
④ 특정 주제의 세목을 전개하거나 동일한 분류기호 아래에서 저자순으로 배열하기 위해 저자기호로 커터기호(Cutter number)를 사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LCC)의 개발 원리, 보조표, 분류기호·색인, 커터기호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CC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에 근거한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제별 전문가가 전개한 열거식 분류법이다. 주류와 5개의 보조표를 사용하고 문자와 숫자를 결합한 혼합기호를 쓰지만, 전체 분류표를 포괄하는 종합색인은 제공하지 않는다. 커터기호는 주제를 더 세분하거나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저자순으로 배열하는 데 사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LCC의 각 주제 분류표는 미국 의회도서관 장서라는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개발하였다.
② O — LCC에는 주류와 함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5개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혼합기호이기 때문에 분류의 편의성을 위해 종합색인을 제공한다'이다. LCC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혼합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실이 종합색인의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LCC에는 전체 분류표를 포괄하는 종합색인이 없다. 올바르게는 'LCC는 열거식 분류표이고 혼합기호를 사용하지만 종합색인은 제공하지 않는다'이다.
④ O — 커터기호(Cutter number)는 특정 주제를 더 세분하거나 같은 분류기호 아래의 자료를 저자순으로 배열하는 저자기호로 사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세계 최대의 열거식 분류표'와 '혼합기호'라는 맞는 특징 뒤에 '종합색인을 제공한다'는 틀린 특징을 붙였다. 분류기호의 형식과 종합색인의 유무는 별개의 특성이므로 인과관계로 연결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LCC 관련 선지는 문헌적 근거·주제 전문가, 주류와 5개 보조표, 문자와 숫자의 혼합기호, 종합색인 없음, 커터기호의 주제 세분·저자순 배열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LCC는 '문헌적 근거·혼합기호·종합색인 없음·커터기호'로 기억한다.

NoteBase

18.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의 여러 방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하나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수록된 데이터 요소, 구문, 구조 등을 다른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의 요소, 구문, 구조 등과 연결함으로써 메타데이터 표준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하나의 메타데이터 표준의 의미를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 특정 메타데이터 표준을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과 의미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반이 된다.

① 네임 스페이스(namespace)
②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
③ 크로스워크(crosswalk)
④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구문·구조·의미를 서로 대응시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크로스워크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크로스워크(crosswalk): 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와 의미를 다른 표준의 대응 요소와 연결하거나 변환하는 매핑이다. 서로 다른 표준 사이의 의미적 대응과 상호운용성이 핵심이다.
네임 스페이스(namespace): 서로 다른 어휘 체계에서 같은 이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름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체계이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 특정 응용 환경의 요구에 맞게 하나 이상의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요소를 선택·조합하고 사용 조건을 정한 명세이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메타데이터 요소나 스키마의 정의·식별 정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여 검색과 재사용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네임 스페이스는 이름의 충돌을 막고 요소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체계이므로,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와 의미를 대응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네임 스페이스'이며, 올바르게는 '크로스워크'이다.
② X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은 특정 응용 목적에 맞게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택·조합하고 사용 규칙을 정한 명세이다. 한 표준의 의미를 다른 표준에 맞도록 변환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며, 올바르게는 '크로스워크'이다.
③ O — 크로스워크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구문·구조·의미 사이에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매핑이다. 제시문의 '다른 표준과 연결', '의미를 변환', '의미적으로 연결'이 모두 이 개념에 해당한다.
④ X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스키마의 정의·식별 정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이지, 표준 간 의미 대응표 자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이며, 올바르게는 '크로스워크'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연결'이라는 말만 보고 네임 스페이스를 고르거나, ②의 '적합한 것으로 변환'이라는 말만 보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특정 응용 환경의 요소 구성이나 이름 충돌 방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 사이의 요소와 의미를 대응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 A의 요소·의미를 표준 B의 요소·의미와 대응 또는 변환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크로스워크로 판단한다. '이름 충돌 방지'는 네임 스페이스, '특정 응용 목적에 맞춘 요소 선택·조합'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요소·스키마의 등록과 관리'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표준 간 대응은 크로스워크, 이름 식별은 네임 스페이스, 목적별 조합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등록·관리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이다.

NoteBase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목록을 작성하고 편성하는 데 표준으로 삼는 준칙을 말한다.
> - 내용표준(content standard), 기술규칙(descriptive rules)이라고도 한다.
> - 데이터의 일관된 표현을 위해 해당 자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정보원이나 기술 언어, 문자, 기술의 영역과 요소, 요소별 기술방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① 자원기술과 접근(RDA)
② 도서관 참조모형(LRM)
③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
④ 국제목록원칙(ICP)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목록 작성의 내용표준으로서 자원 기술과 접근점 기록에 관한 상세 규칙을 제시하는 RDA와, 개념모형·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자원의 발견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관련 개체의 속성·관계를 기술하는 요소와 기록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표준이다.
LRM과 FRBR은 서지정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모형이고, ICP는 목록 원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 문서이다. 따라서 상세한 기술 요소와 기록 방법을 수록한 규칙이라는 단서가 RDA를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자원기술과 접근(RDA)은 목록 작성·편성에 사용하는 내용표준으로, 자원과 관련 개체의 속성·관계, 기술 요소 및 기록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므로 지문의 설명에 해당한다.
② X — 도서관 참조모형(LRM)은 서지정보를 개체·속성·관계 등으로 구조화한 개념참조모형이지, 요소별 기술 방법을 직접 정한 목록 기술규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상세한 기술규칙인 LRM'이며, 올바르게는 '서지정보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참조모형인 LRM'이다.
③ X —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은 이용자 과업을 중심으로 서지레코드가 수행할 기능과 개념 구조를 제시한 모형이지, 목록 데이터의 상세 기록 지침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상세한 기술규칙인 FRBR'이며, 올바르게는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제시하는 개념모형인 FRBR'이다.
④ X — 국제목록원칙(ICP)은 목록규칙과 검색 시스템이 따라야 할 국제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지, 각 요소의 구체적인 기술 방법을 수록한 내용표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상세한 기술규칙인 ICP'이며, 올바르게는 '목록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제목록원칙인 ICP'이다.

오답 포인트

RDA, LRM, FRBR, ICP가 모두 목록과 서지정보에 관련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지문의 '내용표준', '기술규칙', '요소별 기술방법'은 직접 기록에 사용하는 RDA의 단서이며, LRM·FRBR의 '모형'이나 ICP의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서의 역할을 먼저 확인한다. 요소와 기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RDA, 개체·속성·관계와 이용자 과업을 설명하면 LRM·FRBR, 목록의 보편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 ICP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RDA는 기술규칙, LRM·FRBR은 개념모형, ICP는 목록원칙이다.

NoteBase

20. FRBR에서 ㉠, ㉡에 해당하는 개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은 문자나 숫자, 음악, 안무, 소리, 이미지, 물체, 움직임 등의 형식이나 이러한 형식의 조합을 통해 한 저작을 지적·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문자로 쓰인 도서를 구어로 변경한 오디오북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서는 새로운 (㉠)으로 간주한다.
>
> (㉡)은/는 (㉠)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서체나 폰트 크기 등이 변경되었거나 물리적 매체가 변경(예: 종이 → 마이크로필름)된 경우에는 새로운 (㉡)(으)로 간주하지만, 일부 낙장이나 작가의 친필서명이 추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으)로 간주한다.

① ㉠ – 저작 ㉡ – 표현형
② ㉠ – 표현형 ㉡ – 구현형
③ ㉠ – 구현형 ㉡ – 개별자료
④ ㉠ – 저작 ㉡ – 구현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FRBR의 제1집단 개체인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가운데 표현형과 구현형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작은 독립된 지적·예술적 창작물이라는 추상적 개념이다.
표현형은 저작을 문자, 소리, 이미지, 움직임 등의 형식으로 지적·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번역이나 낭독처럼 내용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표현형이 된다.
구현형은 표현형을 특정 서체, 판형, 매체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해 발행·제작한 형태이다. 서체나 폰트 크기 또는 종이·마이크로필름과 같은 매체가 달라지면 새로운 구현형이 된다.
개별자료는 하나의 구현형에 속하는 개별적이고 물리적인 실물 한 점이다. 특정 사본에 낙장이나 친필서명이 생겨도 그 사본의 상태만 달라질 뿐 구현형은 같게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저작', ㄴ을 '표현형'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은 표현형, ㄴ은 구현형이다.

② O
ㄱ은 저작을 문자·소리 등의 형식으로 실현한 표현형이고, ㄴ은 그 표현형을 특정 서체나 매체로 물리적으로 구현한 구현형이다.

③ X
ㄱ을 '구현형', ㄴ을 '개별자료'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은 표현형, ㄴ은 구현형이다. 개별자료는 구현형에 속하는 개별 실물이다.

④ X
ㄴ을 구현형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ㄱ을 '저작'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은 표현형이므로 전체 연결은 'ㄱ-표현형, ㄴ-구현형'이다.

오답 포인트

'저작을 지적·예술적으로 실현한다'는 표현 때문에 ㄱ을 저작으로 착각하기 쉽다. 저작 자체는 추상적 창작물이고, 그 저작을 번역·낭독 등으로 실현한 결과가 표현형이다. 또한 낙장이나 친필서명은 특정 사본의 변화이므로 새 구현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번역·낭독·연주처럼 저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표현형으로 판단한다. 서체·판형·매체처럼 발행·제작의 물리적 형태가 달라지면 구현형으로 판단하고, 특정 사본 한 점의 상태만 달라지면 개별자료 수준의 변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창작의 구상은 저작, 그 구상의 실현은 표현형, 발행·제작된 물리적 형태는 구현형, 손에 든 한 점은 개별자료이다.

NoteBase

21.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가 ② 작곡자
③ 연주자 ④ 영화배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자료의 유형에 따라 책임표시로 기술하는 역할과 책임표시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책임표시는 자료의 지적·예술적 내용의 창작이나 구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표제와 함께 나타내는 요소이다. KCR4에서 녹음자료의 책임표시 범위에는 작곡자와 연주자 등이 포함되고, 화상·영상자료에는 화가 등이 포함되지만 연기자나 배우는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화가는 화상·영상자료의 지적·예술적 내용을 창작한 책임자로서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 포함된다.
② O — 작곡자는 녹음자료에 수록된 음악 작품의 창작 책임자로서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 포함된다.
③ O — 연주자는 녹음자료에서 작품을 실제로 연주하여 구현한 책임자로서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 포함된다.
④ X — 영화배우는 화상·영상자료의 책임표시 기술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기자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영화배우가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영화배우는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서 제외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영화배우도 영화 제작에 참여하므로 책임표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KCR4는 화상·영상자료에서 감독·연출자·화가 등과 연기자·배우를 구분하여, 연기자나 배우를 책임표시의 기술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료 유형을 확인한 뒤 역할을 대조한다. 녹음자료의 작곡자·연주자는 포함되고, 화상·영상자료의 화가도 포함되지만 연기자·배우는 제외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작곡·연주·화가는 책임표시, 영화배우는 제외이다.

NoteBase

22.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014 개정)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시기호는?

- 자료의 형태사항(물리적 특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부호로 기술한다. - 자료형태에 따라 2자리부터 23자리까지 각기 다른 고정길이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자리(00)는 각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호를 입력한다. - 동일 자료가 물리적 형태가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경우 이 필드를 반복 사용한다.

① 006 ② 007
③ 008 ④ 0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고정길이 제어필드 가운데 자료의 물리적 형태를 상세하게 부호화하는 표시기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007은 형태기술필드로, 자료의 형태사항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정해진 자리에 부호로 기록한다. 007/00의 자료범주표시가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며, 그 범주에 따라 필드 길이와 뒤따르는 자수 위치의 의미가 달라진다. 동일 자료에 서로 다른 물리적 형태가 함께 있으면 각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007 필드를 반복할 수 있다.
006은 부가적 자료 특성, 008은 일반적인 부호화정보, 010은 미국의회도서관 제어번호를 기록하는 필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006은 부호화정보필드-부가적 자료 특성을 기록하는 표시기호이다. 틀린 부분은 006을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상세히 나타내는 필드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시기호가 007이다.
② O — 007은 형태기술필드이다. 자료범주를 나타내는 첫 자리 007/00에 따라 2자리부터 23자리까지 길이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물리적 형태를 나타낼 때 반복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의 모든 단서와 일치한다.
③ X — 008은 부호화정보필드로서 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고정길이로 기록한다. 틀린 부분은 008을 형태사항의 상세 부호화 필드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형태사항의 상세한 물리적 특성은 007에 기록한다.
④ X — 010은 미국의회도서관 제어번호를 기록하는 필드이다. 틀린 부분은 010을 자료의 물리적 특성 필드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010은 제어번호용이고, 제시문의 형태기술필드는 007이다.

오답 포인트

006, 007, 008은 모두 제어필드 영역에 있어 숫자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형태사항', '물리적 특성', '첫 자리 00이 자료범주를 표시', '자료형태에 따라 길이가 달라짐', '반복 사용'이라는 표현은 007을 특정하는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드 번호를 기능과 연결하여 판단한다. 부가적 자료 특성은 006, 형태와 물리적 특성의 상세 부호화는 007, 일반 부호화정보는 008, 미국의회도서관 제어번호는 010이다. 특히 자료범주별로 자수 위치와 길이가 달라지는 설명이 나오면 007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007은 자료의 겉모습을 부호로 보여 주는 형태기술필드이다.

NoteBase

2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014 개정)을 적용하여 서지레코드 1과 2에 관련자료의 서지레코드를 기계적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 ㉠과 ㉡에 들어갈 표시기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지 레코드 1	245 ▼a잔인한 도시 /▼d이청준 300 ▼ap.235-384 ;▼c24 cm (㉠) ▼t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회 ▼d서울 : 문학사상사, 1978 ▼gp.235-384
서지 레코드 2	245 ▼a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n제2회(1978) 300 ▼a416 p. ;▼c24 cm (㉡) ▼a이청준 ▼t잔인한도시 ▼gp.235-384

① ㉠ - 773 ㉡ - 774
② ㉠ - 774 ㉡ - 773
③ ㉠ - 775 ㉡ - 776
④ ㉠ - 776 ㉡ - 77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분석대상 자료가 수록된 상위 자료를 연결할 때 쓰는 773 필드와, 상위 자료에 수록된 구성단위를 연결할 때 쓰는 774 필드의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773(기본자료저록): 현재 레코드가 속해 있는 상위 자료를 연결한다. 구성단위인 「잔인한 도시」의 서지레코드 1에서 수록집인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774(구성단위저록): 현재 레코드에 포함된 개별 구성단위를 연결한다. 수록집인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의 서지레코드 2에서 수록 작품인 「잔인한 도시」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775는 다른 판을 연결하는 이판저록이고, 776은 동일 자료의 다른 물리적 형태를 연결하는 기타형태저록이므로 이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서지레코드 1은 수록 작품을 기술하므로 상위 수록집을 가리키는 ㄱ에는 773을 쓴다. 서지레코드 2는 수록집을 기술하므로 그 구성 작품을 가리키는 ㄴ에는 774를 쓴다.
② X — 773과 774의 연결 방향을 서로 바꾼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773, ㄴ-774이다.
③ X — ㄱ의 775와 ㄴ의 776이 틀리다. 이 관계는 다른 판이나 다른 물리적 형태의 관계가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ㄱ-773, ㄴ-774이다.
④ X — ㄱ의 776과 ㄴ의 775가 틀리다. 이 관계는 다른 물리적 형태나 다른 판의 관계가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ㄱ-773, ㄴ-774이다.

오답 포인트

두 레코드가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만 보고 773과 774의 방향을 뒤바꾸기 쉽다. 판단의 기준은 현재 작성 중인 레코드이다. 작품 레코드에서 수록집으로 올라가면 773이고, 수록집 레코드에서 작품으로 내려가면 774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 레코드와 연결 대상의 포함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현재 레코드가 일부이고 연결 대상이 전체이면 773, 현재 레코드가 전체이고 연결 대상이 일부이면 774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부에서 전체로 올라가는 기본자료는 773, 전체에서 일부로 내려가는 구성단위는 774이다.

NoteBase

2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014 개정)으로 작성한 서지레코드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주제명부출표목의 표시기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명부출표목의 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에 따름)

245	▼a세계 일류 명품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d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편
260	▼a세종 :▼b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c2013
(㉠)	▼a도시 건설 사업[都市建設事業]
(㉡)	▼a세종(특별자치시)[世宗]

① ㉠ - 600 ㉡ - 610
② ㉠ - 650 ㉡ - 610
③ ㉠ - 630 ㉡ - 651
④ ㉠ - 650 ㉡ - 651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제명부출표목의 내용 유형에 따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6XX 표시기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600은 개인명, 610은 단체명, 630은 통일표제, 650은 일반 주제명, 651은 지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필드이다. 따라서 '도시 건설 사업'은 일반적인 사물·개념을 나타내므로 650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은 지명이므로 65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을 600, ㉡을 610으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600은 개인명 주제명, 610은 단체명 주제명에 사용하는 표시기호이다. 올바르게는 ㉠ '도시 건설 사업'은 650, ㉡ '세종(특별자치시)'은 651이다.

② X
㉠을 650으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을 610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610은 단체명에 사용하며, 지명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651을 사용한다. 올바른 조합은 ㉠ 650, ㉡ 651이다.

③ X
㉡을 651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을 630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630은 통일표제에 사용한다. 일반 주제명인 '도시 건설 사업'에는 650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 650, ㉡ 651이다.

④ O
'도시 건설 사업'은 일반 주제명이므로 650, '세종(특별자치시)'은 지명이므로 651을 사용한다. 두 표시기호가 모두 알맞다.

오답 포인트

260 필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단체명이 보인다고 해서 주제명 '세종(특별자치시)'까지 610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표시기호는 레코드에 함께 등장한 발행자나 책임표시가 아니라 각 주제명 표목 자체의 유형으로 결정한다. 또한 630의 통일표제와 650의 일반 주제명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주제명 표목이 사람, 단체, 작품의 표제, 일반 개념, 지명 가운데 무엇인지 먼저 판별한다. 사람은 600, 단체는 610, 통일표제는 630, 일반 주제는 650, 지명은 651에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개인 600 · 단체 610 · 표제 630 · 일반주제 650 · 지명 651로 연결한다.

NoteBase

2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2023 개정)에 따라 전거데이터를 작성할 때, 이름의 '전거형'이 들어갈 ㉠의 표시기호와 이름의 '이형'이 들어갈 ㉡의 표시기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황징
370	▼a중국(국명)[中國]
	▼0KSH1998000658▼2nlsh
372	▼a중국 문학[中國文學]
	▼0KSH1998040771▼2nlsh
374	▼a작가(사람)[作家]
	▼0KSH1998013462▼2nlsh
(㉡)	▼a황정,▼g黃靜
(㉡)	▼a웡찡
(㉡)	▼aHuang, Jing

① ㉠ - 100 ㉡ - 400
② ㉠ - 100 ㉡ - 500
③ ㉠ - 300 ㉡ - 400
④ ㉠ - 300 ㉡ - 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개인명 전거레코드에서 대표로 채택한 전거형과 그 전거형으로 안내하는 이형을 각각 어느 표시기호에 기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00 필드는 전거형으로 채택한 개인명 표목을 기록한다. 예시에서 대표 이름인 '황징'이 이에 해당한다.
400 필드는 100 필드의 전거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개인명의 이형을 기록한다. 한자형 '황징, 黃靜', 다른 한글 표기 '윙징', 로마자형 'Huang, Jing'이 이에 해당한다.
500 필드는 단순한 이형이 아니라 별도의 관련 개인명 전거형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황징'은 채택된 개인명 전거형이므로 100 필드이고, ㄴ의 세 이름은 그 전거형에 대한 이형이므로 400 필드이다.
② X — 'ㄴ-500'이 틀리다. ㄴ은 관련 개인명 전거형이 아니라 동일 인물 이름의 한자형·다른 한글형·로마자형이므로 500이 아니라 400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100, ㄴ-400이다.
③ X — 'ㄱ-300'이 틀리다. 레코드가 대표로 채택한 개인명 '황징'은 개인명 전거형 필드인 100에 기록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100, ㄴ-400이다.
④ X — 'ㄱ-300'과 'ㄴ-500'이 모두 틀리다. 대표 개인명은 100, 동일 인물 이름의 이형은 400에 기록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100, ㄴ-400이다.

오답 포인트

전거형과 이형을 '관련 전거형'으로 혼동하는 것이 함정이다. ㄴ의 표기들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황징'이라는 동일 인물 이름의 문자·언어별 변형이므로 500이 아니라 400에 기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레코드가 대표로 삼은 개인명인가를 확인하면 100으로 판단한다. 그 대표형으로 모아 주는 철자·문자·언어상의 다른 이름이면 400, 별도로 성립한 관련 개인명 전거형과의 연결이면 500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명은 대표형 100, 이형 400, 관련 전거형 500이다.

NoteBase